

민중해방의 꽃으로 부활하시어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 발인

1월 9일 오전 9시 순천향대학병원

■ 영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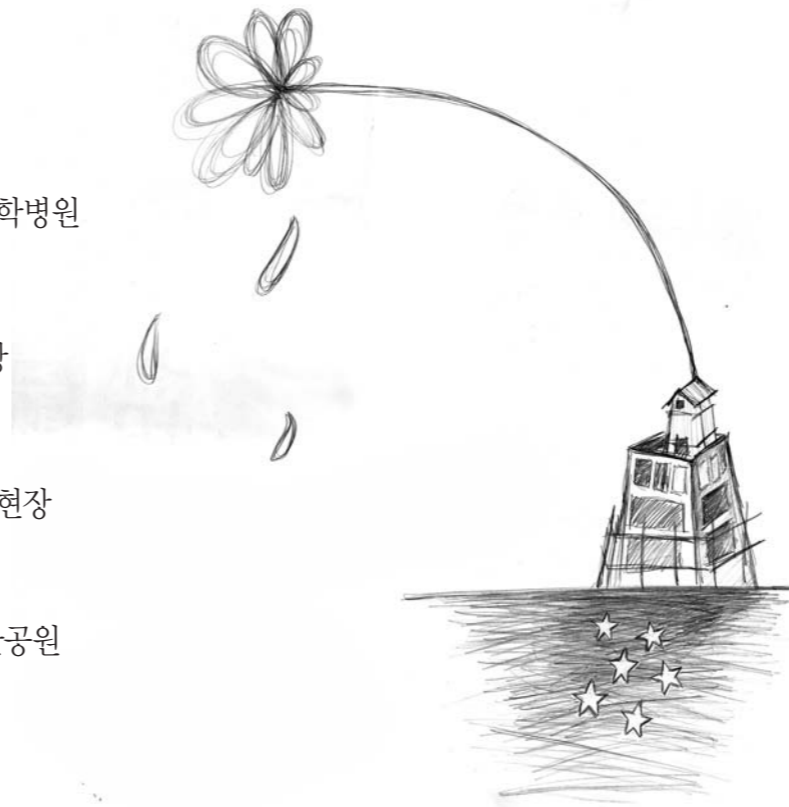
1월 9일 낮 12시 서울역광장

■ 노제

1월 9일 오후 3시 용산참사현장

■ 하관식

1월 9일 오후 6시 마석 모란공원





故 이상림 열사
 1938년 충남당진 출생
 용산4지구 상공 철거민 대책 위원회 고문
 2008년 3월 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사망
 [유족] 부인 전재숙 여사, 2남(성연, 충연)1녀(현선)



故 양회성 열사
 1952년 전남순천 출생
 용산4지구 상공 철거민 대책 위원회 철거민
 영세 상가 세입자
 2008년 3월 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사망
 [유족] 부인 김영덕 여사, 2남(종원, 종민)



故 한대성 열사
 1956년 강원화천 출생
 경기도 수원시 신동 철거민 대책 위원회 조직부장
 2008년 6월 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사망
 [유족] 부인 신숙자 여사, 2남(승균, 황룡)



故 이성수 열사
 1959년 경기시흥 출생
 경기도 용인 신봉 철거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2008년 2월 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사망
 [유족] 부인 권명숙 여사, 2남(상훈, 상현)



故 윤용현 열사
 1961년 충남천안 출생
 서울시 중구 순화 철거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2005년 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사망
 [유족] 부인 유영숙 여사, 2남(현구, 상필)



님들을 우리 심장 깊이 품고자 합니다.

양희성열사님
 윤용헌열사님
 이상림열사님
 이성수열사님
 한대성열사님
 “여기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열사님들은 사람이기에 망루에 올랐고 저희들은 사람이기에 1년간을 싸웠습니다.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온몸으로 맞서는 자가 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인간적인 세상이 너무 슬프고 화나고 용납할 수 없어 울고 몸부림치며 싸웠습니다. 열사님들 얼굴을 한 번도 뵈지 않은 없지만 님들은 지난 1년간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용산남일당을 지키셨고 자본과 폭력에 밀려 쫓겨난 철거민들과 함께 하였고 민생, 인권, 민주주의를 말하는 그곳에도 열사님들은 계셨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외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열사님들은 우리의 눈물이 되셨고 위로가 되셨고 용기와 힘이 되어 사람사는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셨습니까? 님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님들이 벼랑 끝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을 때,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으로 고통 속에 산화해갈 때,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한 사람들입니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님들은 물질중심의 가치관과 생존경쟁의 아귀다툼 속에서 갈수록 사라져가는 인간성을 일깨워주고 사람냄새가 풀풀 풍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용산현장에 오면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겸손과 용기와 인내와 희망을 배우면서 평등과 정의가 넘치는 평화의 세상을 꿈꿉니다. 님들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평등평화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고이 잠드소서. 아직도 용산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살인적인 재개발정책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일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편안히 잠드소서. 유가족들의 눈물과 절규와 고통을 뒤로한 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님들이 만들어준 귀한 벗들이 이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옥에서 님들을 보내야 하는 동지들이 눈에 밝히시겠지만 그들이 우리 곁에 하루속히 돌아오도록 애쓰겠습니다. 또 다시 용산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망루를 세우겠습니다. 탐욕과 오만과 파렴치로 푹푹 멍친 자들의 횡포와 무례함과 살육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고 생존권을 절규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님들을 우리 심장 깊이 품고자 합니다.

열사들이여, 우리 안에 평등, 평화, 민주주의로 늘 함께 하소서.

상임장례위원장 **이강실** **조희주**



용산 열사들의 뜻을 기리며

지난 밤 주먹이 떨어 잠을 못 잤습니다. 틀림없이 중학교 교실까지는 들어갔는데 내 책상이 없는 거라. 그래서 “선생님, 내 책상은요” 그랬는데 빌뱅이라고 때려 깨어보니 흠뻑 젖은 꿈. 속이 언짢아 지나가다 빌뱅이로 모는 녀석하고 붙었는데 싸울 줄을 몰라 실컷 주어터지던 그 겨울이 겹쳐왔던 겁니다.

용산의 노여움은 이명박 정권의 학살입니다. 거기에는 나라 권력을 사용화한 범죄까지 더한 학살입니다.

이명박이 참된 대통령이라고 하면 “내가 어질지 못한 탓입니다. 용서해주세요”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그런 뉘우침을 못 받았는데도 우리 열사들을 땅에 묻어야 한다니 분해서 잠을 못 잔 겁니다.

우리 열사들이 올라간 데가 어디입니까. 오매 사층 집, 거기서 총칼을 들었습니다. 기껏 주먹뿐인 다섯을 경찰관 천육백, 특공대와 용역깡패까지 이천도 더 되는 병력이 갖은 흥기를 다 들고 자근자근 학살했으니 그게 바로 폭도, 폭력 아닌가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열사들을 폭도로 몰아온 건 이명박 정권이 거짓부리는 쥐망나니라는 갖대(증거)입니다. 예부터 거짓부리는 폭도 쥐망나니는 사람 사는 마을에서 쫓아낸다고 했으니 이명박 정권을 이 땅별(지구)에서 몰아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열사들을 땅에 묻어야 한다니 잠이 올 턱이 있겠어요.

이명박씨, 새해엔 국운이 열렸다고 했지요. 거짓으로 사람 잡는 나라의 밝은 새날이란 어떤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냐구요.

서민을 생각한다면 죄를 지은 재벌은 사면복권하고 먹고 살겠다고 바둥이는 사람들을 폭도라는 누명을 씌워 두 번 죽이는 것이 법치입니까.

서민을 돌고저(위한다) 한다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 울고 있는 빈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철도노조파업 바루(현장)에 나타나 파업 파괴를 손수 지휘하는 것도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은 얼음구렁에서 떨고 있는데 길거리의 따스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든가요.

서민 어찌고 하면서 용산 학살은 끝없이 이어져왔습니다. 쌍용자동차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를 마치 미친개처럼 때려잡고, 언론자유를 뿌리째 몽개고, 4대강을 죽여 장사꾼 몇의 배만 불리려 들고, 어기찬 민족문제를 미제 냉전구조에 얽매고, 서민경제를 해체 미국과 국내 부패 재벌의 먹이로 거덜을 내고, 지난 예순 해 동안 피눈물로 쌓아온 민주주의의 갈마(역사) 그 민주 역량을 깡그리 죽이는 그 독재, 그 오만은 무엇이요.

미국 모랏돈(독점자본)과 국내 썩은 재벌들의 쫄목(이익)에 니반(봉사)하자는 거 아니요. 안 돼, 안 된다구.

가뭇이 들면 흘떼(강)는 마르나 진보의 갈마(역사)는 우당(전쟁)으로도 못 죽이는 거요. 독재자의 칼이 사람을 죽일 순 있어도 사람의 알록(실질) 그 꿈은 못 죽이는 거라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의 저 오만, 부패 독재를 땅에 묻기 앞서 저 열사들을 땅에 묻을 순 없습니다. 그 뜻을 불씨로 일어나자고 다짐해야 합니다.

아, 이제 몇 날만 있으면 우리 설날이지요. 그날 따스 떡국이라도 한 그릇씩 나누고 싶은데 아, 열사여! 열사여! 정말 원통합니다.

통일문제연구소장 **백기완**



님들은 우리 가슴 속에 시대의 망루, 양심의 망루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죽음 속 죽음, 죽음만큼 처절하고 야만스러웠던 저 1년여 시간.
 얼마나 괴롭고 또 괴롭고 힘드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죄스럽습니다. 한없이 죄스럽습니다.
 허나 지금이라도 가시는 이 길,
 그 모든 아픔과 눈물 다 내려놓고
 부디 영원한 안식과 평화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님들은 우리 가슴 속에 시대의 망루, 양심의 망루를 세웠습니다.
 물질과 돈놀이에 넋을 빼앗긴 채,
 살아있되 죽어있던 이 무심하고 야박한 영혼들을 세차게 일깨웠습니다.
 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계신 자리를 잇고 산
 이 시대 사제들과 신앙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고,
 들어야 할 것에 귀 기울이며,
 외쳐야 할 것에 입을 열어 선포하게 했습니다.
 가족애를, 헌신과 우정을, 자존과 신의를, 존엄과 용기를 알게 했습니다.
 우리 안의 탐욕, 이 시대 진짜 괴물을 똑바로 보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밖에 없어서,
 드릴 수 있는 거라곤 님들로 인해 통곡하고 아파하는 내 몸뚱이 진심밖에 없어서,
 온 몸 누여 오체투지기도를 했습니다. 단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님들은 돌아오지 못한 저승 문에서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님들께서 이 이승에 남아있는 피붙이들,
 마저 지켜보고 돌봐달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정의롭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걸음하기를 멈추지 말아달란 뜻으로
 제 가슴 깊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이제 님들을 떠나보내며 새로 시작입니다.
 이제 님들은 떠나가시며 영원히 우리 안에 남으십니다.
 가난한 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따뜻한 마음들이 솔하게 늘어가는 거리에서 님들을 바로 보겠습니다.
 거기 함께 웃고 있는 님들을 기쁘게 소리쳐 부르겠습니다

전주 평화동성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문규현**



그곳은 부디, 이윤이 아닌 삶을 위해 집을 짓는 세상이길.....

이명박! 당신은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기나 했느냐! 너희들은 사람의 가치를 알기나 아느냐!
너희들은 움켜진 권력으로 추모를 금지했다. 너희들이 죽였기 때문이다.
촛불만 들어도 폐잡이 폭도라 노려봤다. ‘법과 원칙’이란 고작 폭군의 채찍이기 때문이다.

저들은 우리를 남일당에서 태워 죽이고, 순천향병원 냉동고에서 영영 얼려 죽이고
345일 말려 죽일 작정이었지만, 용산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하루 상복과 울분을 벗지 못하고 용산을 지켜준 유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건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가족만이 아니었지요.
당신들이 지켜낸 용산은 나의 신념이고 우리의 민주주의였습니다.
테러분자! 잔인하게 매도해도 흔들리지 않은 전철연 동지들에게 감사합니다.
개발이윤의 꼭대기가 아닌, 낮은 곳에서 시련을 자처했던 진정한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서럽게 간히고, 잡혀가고, 함께 싸우던 살아있는 양심들,
함께 울었고 지치기도 했던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미안합니다. 이제야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모진고생 함께했던 남편을 잃고, 정겹던 아들조차 아버를 죽인 누명으로 잡혀간 그대들
아~그대들 앞에서 우리는 어찌자고 지치고 힘들다며 꾸밈혔단 말입니까.
어찌자고 오늘 내 몸은 또! 한 줄기 칼바람에 춥다고 투정하는지...정말 미안합니다.
불길에 피부가 녹아내리고 냉동고에 갇혀 심장이 얼어 터져도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처연한 당신들 앞에서
우리는 왜! 무엇을 망설였단 말입니까.

이상림, 윤용현, 이성수, 양희성, 한대성
나는 고인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를 추모했던가요?
만에 하나! 그대들을 투쟁의 한 부분으로 여긴 냉정한 순간은 없었는지 자문합니다.
사람을 잊고 떠난 이웃을 망각한 민주주의는 공허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아파할 줄 모르는 정의는 무력합니다.
이상림! 윤용현! 이성수! 양희성! 한대성!
나의 가족이여! 나의 남편이여! 나의 아버지여! 이제 여기에 없는 나의 이웃이여...

슬퍼하는 이들과, 억울해 목 놓아 우는 사람아! 잊지 맙시다!
철거로 벽이 허물어지고 뚫려도 우리에게겐 사방이 막다른 길이었습시다.
“여기 사람이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절규했지만
권력이 판을 벌이고 자본과 이권이 붙어먹는 재개발엔 사람을 위한 설계는 없었습니다.
쫓겨난 삶이 절규에 도달하면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 땅의 현실을 잊지 맙시다.

다섯 분의 소박한 국민이여! 이제 그대들을 보냅니다.
그곳은 부디, 이윤이 아닌 삶을 위해 집을 짓는 세상이길.....
그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훗~훗 고이 가-소-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성규**



열사들의 염원을 되새겨 민중 해방의 새 세상을!

2009년 새해 벽두 이명박 정권은 건설자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앞세워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철거민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 땅의 떳떳한 국민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열사들의 작은 바람은 가진 자들의 탐욕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난쟁이, 다섯 분의 주검 앞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은 이들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지 않는 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용산참사’란 단어만 들어가도 ‘묻지마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권력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유가족이 당한 슬픔과 분노를 어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살자고 올랐던 망루에서 주검이 되어 내려온 열사들 앞에 엎드려 오열하는 유족들을 바라보며, 또한 수백일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외면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정말 장한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못해드리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 소홀했던 점이 지면을 빌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행히도 철거민들의 투쟁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참사 첫날부터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쟁의 현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또한 문정현 신부님과 천주교사제단이 용산을 성지로 만들어 우리의 싸움을 함께 만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불교 각 종단에서도 철거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위로하며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국철거민연합 중앙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두 여성동지들, 그리고 망루에 올랐다가 살인진압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곧바로 철창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는 동지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동료들 가슴에 묻고 가열찬 투쟁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오신 전철련 동지여러분들께 꿋꿋이 버티고 있는 가슴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폭풍같은 탄압을 뚫고 1년 동안 거침없이 달려왔지만 돌이켜보면 수많은 이들의 실천적 연대와 헌신적인 사랑,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투쟁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남은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폭력진압 희생자인 동지들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반면, 폭력진압 책임자들은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과도 진실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수사기록 3000쪽도 아직까지 꼼꼼 감춰져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더라도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기나긴 싸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개발로 인해 고통 받는 철거민들의 현실과 특히 재개발의 문제가 도시 서민 누구한테나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 중요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열사들의 염원을 되새겨 민중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남경남**



서울특별시 용산 4지구, 남일당, 355일, 췌, 췌, 바람소리

- 산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

오 우리애들 아빠, 난데없는 불에 타 죽으며 얼마나 뜨거웠으리
 죽음은 시간을 벗어나 수 천 만년도 잠깐이겠으나
 수 억 년 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
 기약도 없는 비명의 이별은 더 아픈 남떠러지인 것이오.
 벼락같은 당신의 죽음으로 살아남은
 나의 생 또한 살아남았달게 없는 생이겠으나
 당신이 떠난 자리 홀연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역사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된
 자리로 내 몸 안에 들어서는 것이오.
 죽은 당신의 의로운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불타는 당신을 3백 5십 5일 동안 이 세상에 세웠으니
 당신의 고통을 백 배 늘인 죄가 이 세상의 나에게 있겠으나
 나와 우리애들은 라면 끓이는 생계의
 곤로 불에도 당신의 아픔을 새길 것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서울에 내린 백년 만의 26센티미터 폭설이
 아무리 흠날려도 산발갈지 만은 않을 것이오.
 발이 푹푹 빠지지 않아도 우리가 태어나기전 조선 역사의
 시간은 저렇게 하얗소. 그렁소. 고통으로 아픔답소,
 고층아파트 창턱에 줄줄이 길게 얼어붙은
 목숨도 당신의 죽음으로 아픔답소. 비는 무슨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같소.
 하나님 이 있다면 그 절대의
 주제를 변주하는게 위대한 작곡가라 했고
 그 변주를 다시 변주하는게 연주자라 했고 언제쯤
 정말 듣는다면
 듣는 자의 연주는 가장 위대하다 했오.
 당신이 바로 그 언제쯤이오. 남일당 바람 소리
 췌, 여기 사람이 죽었다.
 미래의 바람 소리 췌,
 여기 의로운 사람들이 죽었다, 췌, 그 소리.
 사람들에게 정말 들릴 것이오. 정말 널리 널리
 퍼질 것이오. 가시오. 이제
 편히 가시오. 이별의 물리학 혹은 천문학이 아무리 슬프더라도.
 가셔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은 갔습니다

시인 김정환



진실을 위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고마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함께 배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없었더라면 저희는 이자리에 설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355일만에 장례를 치르게 된 지금, 갖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보낼 것이었다면 왜 1년이나 끌어왔나 원망이 듭니다. 화마에 불타고 칼에 찢겨진 내 남편, 내 아버지의 시신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생지옥에서 살아야 했던 저희 유가족들을 1년이나 모른 척 하다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과 한 마디 하기가 그리도 어려웠나요?

지난 연말 고인들의 시신을 차가운 냉동고에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용단을 내린 유가족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애써 본 척 들은 척 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 전 고인들을 '도시 테러리스트'라고 몰아붙인 기억들이 되살아나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1년만에 집에 돌아간다 한들 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요. 고인들의 육신은 땅에 묻어 드릴 수 있겠지만, 테러범, 살인범으로 낙인찍혀 땅바닥에 떨어진 고인들의 명예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텅빈 방 한구석에 자리잡은 내 남편, 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쉽사리 씻을 수 없겠지요.

이미 할궤어질대로 할궤어진 용산 현장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떠나기만을 호시탐탐 바라던 건설업체들이 또 언제 어디서 이런 만행을 저지를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회한을 안고 고인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저희 유가족, 국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실을 밝혀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방에 갇힌 내 아들, 우리의 동료들이 하루빨리 무죄로 풀려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철거민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 저 위 태로운 하늘 끝 망루로 오르는 일이 없도록 이 잘못된 재개발을 바로 잡아주세요.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저희 유가족, 앞으로 갈 길이 많기에 다시 한번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유가족들을 보살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유가족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모든 분들께 그 고마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2010년 1월 9일

용산참사 철거민 열사 유가족 일동

용산참사 355일.... 투쟁의 기록

- 2009년 1월 19일

국제빌딩주변 용산4지구 철거민 세입자 20여명 철거민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한강로 변 남일당 건물 4층에서 망루 농성 돌입, 경찰 1600여명 대치, 강제진압 시도



- 2009년 1월 20일

새벽 경찰 특공대의 강제진압으로 망루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사망. 당일 저녁 용산에 수만의 시민이 모여 추모대회와 행진 진행.

- 2009년 1월 21일

100여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등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약칭 용산범대위) 결성.

- 2009년 1월 24일

용산범대위, 서울역 광장에서 범국민 추모대회 개최, 3월까지 매일 촛불추모제와 주말 추모대회 강행, 참가자들 연행, 벌금, 구속, 수배 등 정권의 탄압 지속.

- 2009년 2월 9일

검찰, 철거민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짜맞추기 수사결과 발표.



- 2009년 3월 20일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 순천향병원 앞에서 체포 구속.

- 2009년 3월 28일

문정현 신부 등 천주교사제단 용산참사현장에서 생명평화미사 시작

- 2009년 4월 8일

용산범대위, 정부의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임시상가-임대상가 도입 등 재개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계 대책 마련, 구속자의 석방 등 5대 정부요구안 발표.

- 2009년 4월 22일

유가족 및 용산범대위 대표단, 대정부 요구안을 거부한 정부에 항의하며 참사 현장 무기한 농성 돌입.

- 2009년 6월 1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시국선언 발표 후 용산참사 현장 무기한 천막 기도에 돌입함. 경찰과 용역, 사제 및 유가족, 철거민들에 대한 폭행이 지속.



- 2009년 7월 20일

용산범대위, 참사 6개월을 맞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기 위한 천구의식을 진행. 경찰 원천봉쇄.

- 2009년 7월 23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사회원로와 각계각층 대표자 시국선언 발표

- 2009년 8월 17일~20일

용산참사 해결 촉구 1차 전국 순회 촛불 투쟁, 광주/부산/전주/창원/대구/원주

- 2009년 9월 4일

수배 중이던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박래군, 이종희,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 3명 명동성당으로 장소를 옮김. 용산 유가족도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을 정리하여 용산현장으로 옮기고 현장 투쟁력 강화.



- 2009년 9월 15일~26일

용산참사 해결 촉구 2차 전국 순회 촛불 투쟁, 수원/청주/전주/아산/대전/목포/광주/제주/창원/울산/부산/대구/인천/원주

- 2009년 10월 3일

정운찬 신임총리, 추석날 오전에 용산참사 현장 방문, 유감 표명. 이후 정운찬 총리는 책임 회피.

- 2009년 10월 12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제12차 전국사제 시국미사, 정의구현사제단, 전종훈 대표신부 식발/단식 기도 돌입. 문규현, 나승구 신부 동조 단식 돌입. 단식 기도 11일째, 문규현 신부 심장마비로 의식불명(3일후 의식 회복)

- 2009년 10월 18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진행.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등 기소인 전원 유죄 판결.

- 2009년 10월 28일

용산 1심 재판 선고 / 망루 생존 철거민에 전원 유죄 판결 5~6년 형 구형. 불구속 중이던 철거민들도 법정 구속됨.

- 2009년 11월 14일

용산참사 300일 추모대회 서울역에서 개최. 300일을 앞두고 300인 1인 시위, 대표단 단식 전개

- 2009년 12월 30일

서울시와 보상문제와 임시상가-공공임대상가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 타결, 정운찬 총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개발 정책의 개선을 담은 유감을 표명하는 사과문 발표함. 용산범대위는 장례협상 타결을 수용하고, 장례준비절차를 밝기로 함.



- 2010년 1월 5일

명동성당에서 회의를 거쳐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을 치르기 위해 장례위원회 결성.

- 2010년 1월 9일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영결식 식순

사회 | 김태연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개식선언

민중의례

개식사 | 이강실, 조희주 상임장례위원장

열사약력보고 | 성락경 전국철거민연합 사무국장

경과보고 | 변연식 공동장례위원장

조사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조시 | 김정환 시인

조가 | 박준

조사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당대표

진혼무 | 김미선

조사 |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유가족인사

조가 | 안치환

호상인사

분향 및 헌화 (연주 : '향')

노제 식순

사회 |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개식선언

민중의례

조사 | 임성규 공동장례위원장

조가 | 최도은

조시 | 송경동 시인

조사 | 문정현 신부

진혼굿 | 춤패 출

유가족인사

조가 | 노찾사

(호상인사)

분향 및 헌화